

숲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朴 峰 宇

우리가 이 지구, 이 땅에서 생활해 온 이래 숲은 우리 환경의 일부분이 되어 왔으며, 우리의 생활, 문화의 대부분은 이 숲을 희생시킴으로서 비롯되고 있다.

숲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위협스럽고, 외경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식량을 얻는 곳이 되었고, 거처하는 곳이 되었다. 문명이 발달하여 감에 따라 숲은 기구, 농구, 선박, 종이 등을 만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원공급처로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생명지지 체계로의 기능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숲이라 함은 단순히 나무가 모여져 있는 곳은 아니다. 숲은 나무 이외에도 풀과 짐승, 곤충과 미생물 등 여러 생물들이 주요한 구성 인자가 되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생물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숲은 하나의 동적 평형상태를 이루어 자신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숲은 약 3억5천만년전인 실루리아기에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석탄기인 2억7천만년전부터 2억2천만년전 까지에는 극성기에 달하였다. 석탄기 이후 약 2억만년전인 페름기에 지구는 빙하기를 격게 되는데 이 시기에 예전 형태의 동식물들의 생활은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파괴되었고, 새로운 형태로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약 5천만년전인 제3기가 시작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들이 존재하게 되었다(Seward, 1941).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지구의 모습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00년을 넘지 않을 것

이다. 초기의 인간들은 주로 식량을 채집하던지 수렵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숲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구석기인들은 불을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숲에서 발생한 대화재에 관한 흔적들은 북부 독일과 네덜란드의 여러 지역에서 탄화된 나무줄기와 두꺼운 숯의 층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층에는 인공으로 가공된 것들과 불을 피웠던 자리 그리고 재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기시대 수렵가들의 캠프의 흔적들이 포함되어 있다(Marr, 1956).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식생에는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지만, 숲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최초의 중요한 변화는 이보다 늦은 기원전 7000년과 5000년 사이 인간이 농경사회를 이룩하면서 부터였다.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연료, 산업용 목재의 수요가 증대되었고, 농경지와 목축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숲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다.

이후 계속되는 숲의 쇠퇴는 농업, 목축의 발달과 더불어 조선업이 발달하면서 가중되어 1862년 철갑선의 우수성이 증명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조선업의 발달에 따른 목재의 수요는 대단한 것으로 유럽과 지중해 연안지역의 삼림황폐를 가속화하였으며, 때로는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7세기초 서구 해군력의 증추를 이루었던 화란 함대는 30년 전쟁의 배상금으로 받아낸 게르만의 참나무숲의 목재로 건조된 것이었고, 화란 함대의 흥성은 그 때까지 처녀림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발틱반도 내륙의 숲

에 다분히 의존하고 있었다. 발틱반도의 숲은 이후 계속해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영국 해군에 목재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다. 17, 8세기에 이르기까지 목재는 해군군수품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DeVeze, 1965).

16세기 경부터 자본주의의 발생을 보게 된 유럽에서는 목재의 상행위가 왕성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목재의 중요성과 부분적으로는 목재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 점차 삼림경영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부

16세기 경부터 자본주의의 발생을 보게 된 유럽에서는 목재의 상행위가 왕성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목재의 중요성과 부분적으로는 목재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 점차 삼림경영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삼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되었고, 19세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드베즈(1965)는 “19세기는 임업혁명의 세기”라고까지 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근대임업은 임업전문학교, 임업협회를 설립하게 하였고, 임업에 대한 교과서, 연구성과들을 출판하게 하였지만, 아쉽게도 숲 전체의 조화로운 이용보다는 목재의 보속수확(sustained yield)에만 치중하여 숲은 곧 목재 생산지라는 등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된 (임업=목재생산)이라는 등식은 전통적인 숲의 인식을 뒤바꿔 놓게 되었다. 옛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숲은 목재와 더불어 물을 생각하게 하는 자원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1418년(태종 18년)에 “...임목까지 점차 없어져 산골(山骨)이 노출되고 천원(泉源)이 고갈되어...”라는 기사와 중앙관서인 호조에 산택사(山澤司)를 두어 산과 물을 아울러 관리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고, 서양에서도 13세기 루이 왕조시대 임무관을 치수임업상급관(治水林業上級官)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 목재와 물 모두를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orest(삼림, 숲) 그 자체가 수렵지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14세기 리투아니아의 법령을 보면 삼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목재생산보다는 숲에서 생활하고 있는 야생

동물에 더 무거운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가치라는 것은 수렵대상이 되는 짐승, 양봉을 위한 꿀벌, 모피를 얻을 수 있는 짐승, 새, 담수어 등이었다(DeVeze, 1965).

임업이 이러한 전통적인 삼림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재인식하게 된 것은 1960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5회 세계임업회의에서 “세계의 삼림자원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삼림의 다목적 이용이란 수자원, 목재생산, 레크리에이션, 풀, 야생동물 등 삼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요 편익을 중심으로 하여 임업을 경영하자고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자연에 가까워 지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말에 들어와서 공업화와 더불어 심각하게 더러워진 환경으로부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실효과 등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과심은 또 한차례 삼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지구의 수문적, 지질적 순환에 있어서 침전물과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소음, 먼지, 산업폐기물, 대기오염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숲은 지구상의 생물을, 우리의 생명을 지지하는 체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때 전 지구를 뒤덮고 있던 숲은 이제 지표면의 30%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 생산량의 9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혼란함을 개량하고 대기와 물 순환의 바람직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완충기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의 숲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현재 시작되고 있는 열대우림에 대한 세계적 관심, 열대우림보존에 대한 지구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며, 숲에 대한 인식전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자 오덤(Odum, 1984)는 숲의 이러한 생명지 지 기능에 대한 인식의 출발을 위하여 미국 산림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의 입구 게시판에 있는 “이 국유림은 공공편익을 최대한 보속수확에 기초하여 목재, 꿀, 야생동물, 담수어를 생산한다”는 문구를 “이 국유림은 도시 및 산업지역에 대한 생명지 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물로 목재, 꿀, 야생동물, 담수어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로 고쳐 쓸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덧붙인다면, 숲은 그저 멋진 산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단시간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만 지혜로운 간섭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아주 조금 줄여 줄 수 있다는 정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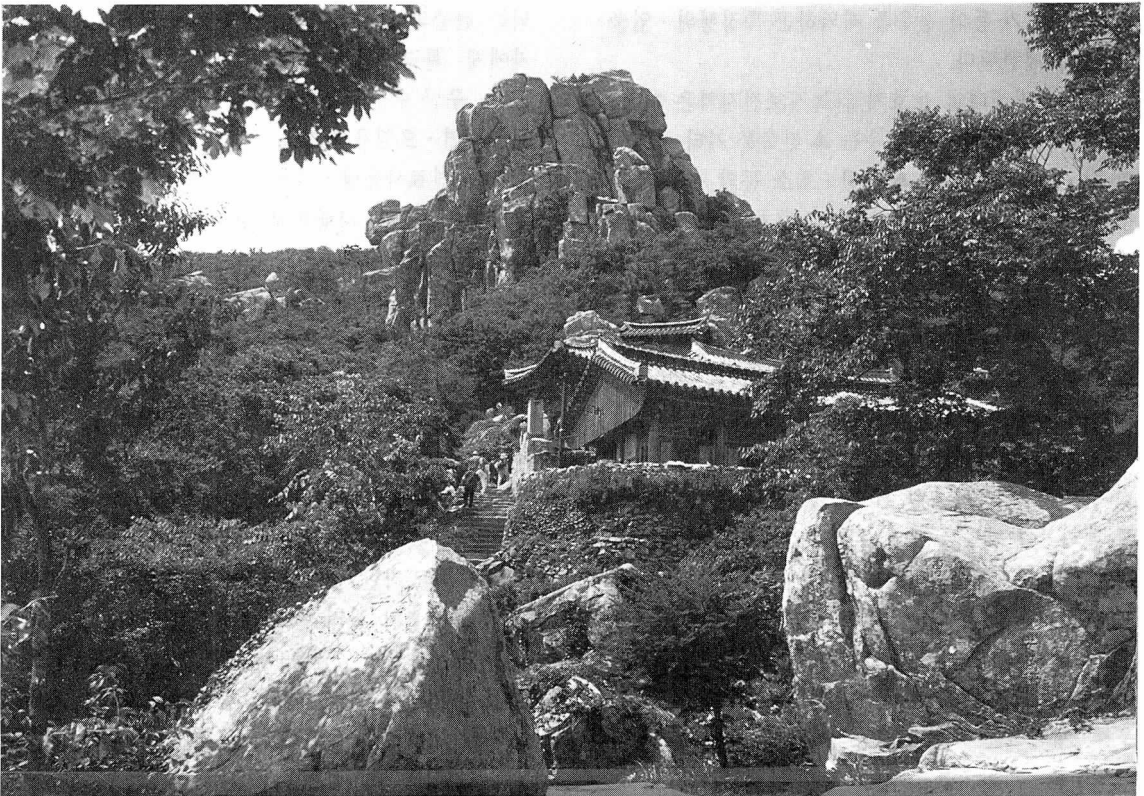
DeVeze, M. 1965: *Historie des forsts*/임경빈역, 1978, 삼림의 역사, 중앙일보, 188p.

Marr, K.R. 1956: *Early food-producing populations*. In: *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131-151. W.L. Rhomas, Jr., ed. The Univ. of Chicago Press.

Seward, A.C. 1941: *Plant life through the ages*. 2nd ed. Cambridge Univ. Press, 601p.

Odum, E.P. 1984: *Diversity and the forest ecosystem*, 35-41.

[筆者: 本會會員 · 江原大 綠地造景學科 教授]



한려해상 국립공원 錦山 보리암(八公山지부 高上達회원 촬영)